

이슈브리프 891호
(2026. 9. 9)

강건호 취역과 북한 해군의 새로운 전략적 행보

제891호

김보미 bomi@inss.re.kr



국문초록

9월 6일 북한이 두 번째 5천 톤급 '새세대구축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하였다. 강건호는 앞서 취역한 최현호와 함께 북한이 기존의 소형 함정 중심의 해군에서 벗어나 대형 수상전투함을 중심으로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최현호가 서해에, 강건호가 동해에 배치됨으로써 북한은 동·서해에서 대형 구축함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최현호는 NLL 인근에서 해상경계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강건호는 동해를 넘어 보다 넓은 해역으로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구축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면서 이를 핵·미사일 전력과 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강건호를 '국가핵대응체계에 망라된 하나의 수단이고 역량'으로 규정하고, '전쟁억제'와 함께 '전쟁수행'을 강조한 것은 해군의 역할을 핵 억제와 유사시 전쟁수행까지 확대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추가 구축함의 건조·배치와 대형 수상전투함의 작전 지속능력, 1만 톤급 함정 건조 및 해군기지·조선소 현대화 등 해군 현대화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빠른 전력 증강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기반과 북러 간 기술협력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강건호, 구축함, 해군 현대화, 원해작전, 해군 핵무장화

9월 6일, 북한의 두 번째 5천 톤급 구축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이 원산항에서 개최되었다. 강건호의 취역은 앞서 2026년 6월 23일 남포조선항에서 진행된 ‘최현호’ 취역식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강건호는 부분적으로 전복되었지만, 이후 북쪽인 라진 조선소로 예인되어 2025년 6월 재진수에 성공하였다. 올해 7월 3일에는 구축함에 탑재된 각종 무기체계의 전투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김정은은 두 달 내 강건호의 취역을 지시하였다. 이번 강건호의 취역으로 북한은 동해와 서해에 신형의 대형 구축함을 배치하게 되었으며, 이번 취역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정 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리설주 여사, 김주애 등이 참석하고, 당·군의 핵심 간부들이 수행함으로써 강건호 취역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새세대구축함’의 제원과 성능

최현호와 강건호는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취역한 동일한 5천 톤급 ‘새세대구축함’이다. 북한이 후속함인 강건호를 ‘제2호함’으로 명명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취역한 최현호를 ‘제1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수상전투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었다. 기존 북한 해군의 주요 수상전투함은 1,500톤급 나진급 호위함과 1,300~1,500 남포급 초계함 등 중소형 함정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최현호와 강건호는 약 5천 톤의 배수량과 140m가 넘는 전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수직발사체계(VLS)를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및 지상공격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앞서 최현호를 통해 신형 구축함의 지향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4월 최현호 진수식에서 김정은은

해당 함정을 방공·대함·대잠전은 물론 탄도미사일 방어와 지상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탑재한 다목적 전투함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신형 구축함이 특정 임무에 특화된 기존 연안 전력과 달리 다양한 무기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복수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강건호 역시 최현호의 후속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무기 구성과 임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건호에서 진행한 무기 시험발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26년 7월 3일 강건호에서 전략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으며, 함포와 자동기관포, 전자전 장비 등의 운용능력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 함포와 자동기관포 등의 다양한 무기체계는 향후 구축함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시험은 강건호가 복수의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강건호의 전략적 의미: 동해와 원해작전

다만 동일한 신형 구축함이라 하더라도 최현호와 강건호는 배치된 해역의 특성과 북한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서해함대에 배치된 최현호는 북한이 제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NLL의 정치적·군사적 의미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에 비해 정전협정상 해상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NLL은 북한이 남북 간 영토와 주권 문제를 부각하는 주요 쟁점으로 활용해온 사안이다. 북한이 서해에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할 경우, 최현호와 같은 대형 구축함은 북한의 해상 존재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현호는 NLL 인근의 군사활동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해당 수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동해에 배치된 강건호는 해상경계 문제에 더해, 북한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해를 넘어 보다 넓은 해역으로 확대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에 비해 동해는 수심이 깊고 북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넓은 해역을 갖고 있어 대형 수상전투함이 장거리 기동과 원해작전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김정은 역시 강건호 취역식 연설에서 동해와 인근 수역을 북한이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해군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가장 위력한 전략자산들을 가장 중요한 수역들에 전개하여 공화국의 해상주권과 동북아시아의 안전환경,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 원칙적이고도 책임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이며 또한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강건호를 동해에만 묶어두기보다 향후 북한이 필요로 하는 주요 해역에 투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해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될 경우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해양작전 범위가 동북아 주변 해역으로 확대되고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해상 분야로까지 이어진다면, 동해에 배치된 강건호의 활동 범위와 역할 역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5천 톤급 대형 구축함의 동해 배치는 북한이 원해작전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동북아 주변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기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군 현대화와 핵 억제력

대형 구축함의 연속적인 건조와 취역은 북한이 해군 전력의 양적 확대를 넘어 전력구조 자체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해군기지의 건설 및 현대화와 함께 1만 톤급 함정의 건조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산업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형 함정 건조계획이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건조 가능성 자체보다 북한이 이제는 기존의 소형 함정 중심 해군에서 벗어나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구축함·잠수함·해상 타격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수상·수중 전력을 연계하고, 해상에서의 공격수단과 작전 선택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해군의 현대화가 단순히 함정의 규모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타격수단을 결합한 복합적인 해상전력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해군의 핵무장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해군 무력강화가 단순 재래식 전력 증강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25년 4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최현호에서 진행된 첫 무기시험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국가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하여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9월 6일 강건호 취역식에서 김정은은 한발 더 나아가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강건호를 “국가핵대응체계에 망라된 하나의 수단이고 역량”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군 전력을 재래식 해상전력에 그치지 않고, 핵·미사일 전력을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강건호 취역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전쟁억제’와 함께 ‘전쟁수행’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해군의 역할과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로 전쟁억제 차원에서 강조해왔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전쟁 수행의 측면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이 해군력 강화의 목적을 전쟁억제에만 두지 않고, 유사시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구축함과 잠수함 등 대형 플랫폼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전력이 결합될 경우, 북한 해군은 기존의 연안방어 중심 역할을 넘어 핵전력 운용의 공간과 수단을 다변화하고 해상에서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개 방향

북한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하여 향후 전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현호와 강건호에 이어 추가 구축함이 어떻게 건조·배치되고 실제 작전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이다. 김정은이 1년에 2척의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도록 지시한 만큼, 향후 대형 구축함이 증가하면서 북한이 해상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경계와 활동 범위를 넓혀가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해에서는 최현호와 추가 구축함을 NLL 인근에 배치·운용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실제 군사활동으로 뒷받침하면서 기존 NLL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동해에서도 대형 구축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변 해역에서 해상 경계와 관할권 문제를 자극하고 북한의 해양 활동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간 해상 군사협력이 확대되거나 연합훈련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러 해군이 동북아 및 태평양

일대에서 연합훈련과 공동 해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향후 이러한 역내 해상협력에 참여하거나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계획이 개별 함정의 건조를 넘어 해군 전력과 조직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이다. 김정은은 강건호 취역식에서 해군의 역할을 ‘전쟁억제’와 ‘전쟁수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각이한 계열의 함선 건조와 취역뿐 아니라 조선소 현대화와 하부구조 건설, 해군무력 개편과 새로운 부대창설 등을 포괄하는 계획을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해군 현대화가 단순한 함정 증강을 넘어 함정 건조 기반과 해군의 편제·부대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1만 톤급 함정 등 추가 함정의 건조 여부와 함께 조선소와 해군기지의 현대화, 새로운 해군부대의 창설 및 개편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주요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서해에 분산된 해군력을 어떻게 하나의 전력체계로 연결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지리적 제약으로 대형함정의 동서해 간 직접 이동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지휘통제체계와 육상 미사일 전력 등을 연계해 양 함대의 작전적 협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의 빠른 해군 현대화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기반과 외부 협력 여부이다.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제2차 함선공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해군력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정은 역시 강건호 취역식에서 해군 무장의 현대화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과제였음에도 불과 몇 해 전까지 해군의 사명과 전적에 걸맞은 함선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해군 무장력의 변화가 두드러졌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군무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8개월 후 이를 다시 증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구축함을 넘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해군 전력, 즉 추가 건조할 5천 톤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1만 톤급 대형 군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같은 다른 성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함정 건조 역량을 축적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구축함 건조와 첨단 무기체계 통합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외부의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이 있었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급속한 해군 현대화가 자체적인 기술 축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등 외부와의 기술협력이 결합된 결과인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